

중국, 화장품 수입관세 50%로 인상

2007년부터 사치품 수입관세 대폭 상향조정 ... 자원·환경제품도 부과

중국이 호화 사치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2007년부터 대폭 상향조정한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우송해 중국에 들어오는 골프공과 골프클럽, 고급 손목시계의 관세를 현재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화장품에 대한 수입관세도 20%에서 5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스테인리스, 텅스텐, 크롬 등 자원위주의 수출상품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딸기 등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인하했다.

중국의 관세조정으로 관세율은 평균 9.9%에서 2007년 9.8%로 0.1%p 하향 조정된다.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15.2%, 공업제품은 8.95%로 조정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8>